

# “급격한 기온 저하 대비 농작물 관리는 이렇게”

### 농진청, “가을철 보리·밀, 적기 파종해야 월동 전 적정 잎 수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가을철 급격한 기온 저하에 대비해 노지작물과 시설 온실의 생육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식량작물인 벼와 콩은 수확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수확 후에는 적정 온도로 건조·저장한다. 동계작물인 보리, 밀은 지역별로 권장하는 맥류 파종(씨뿌림) 한계기를 넘기지 말고 제때 파종해야 월동 전 적정 잎 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배수(물 빠짐)가 좋지 않은 맥류 재배지에는 파종 때 배수구를 설치해야 생육 중 습해와 동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마늘·양파 재배지에 덮은 비닐은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고정한다. 난지형 마늘은 월동 전에 삭이 트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비닐, 지푸라기 등으로 덮어줘야 겨울철 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양파는 11월 상순까지 모종 아주심기(정식)를 마친다. 생육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재배지 토양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수확하고, 수확이 어렵다면 배춧속이 얼지 않도록 묶어주거나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준다.

일반적으로 무는 0도 이하, 배추는 영하 8도 이하에서 어는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영하 3도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사과 어는점은 영하 1.0~2.5도 정도이다. 이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단 몇 시간만 노출돼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익는 시기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인 사과·후지 품종은 색이 들 때(착색)를 기다리느라 수확 시기를 지나치게 늦추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 과실이 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울해는 내부 성숙은 빠르지만 착색 발현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확을 너무 늦추지 말고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끝내야 한다.

단감의 경우 가을철 과실 성숙기 전후에 서리가 내리거나 최저 한계온도

(영하 21도) 이하면 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을 활용하거나 방상팬을 가동해 찬 공기가 과수원 내 장시간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치한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은 밤 동안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천창과 측창(결창)을 잘 닫고, 낮에는 환기에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재 기상과 작물별 추산 생육 상황을 실시간 확인(모니터링)해 ‘기상 대응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된 농업경영체(182만 명)에 농작물 관리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 누리집에서는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 정보, 재해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문자나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8일 전주시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2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전주시 금융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 신용회복위원회, 200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채무상담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지역본부장 신우선)는 28일 전주시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20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지원사업’은 전국 6개 광역 지역 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발굴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금융 연체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맞춤형 채무상담·조정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후원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주시의 연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주시 각종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취약계층 98명에게 이불과 온풍기, 쌀 등의 생필품이 제공(인당 21만 원 상당)됐다. 또, 채무상담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상담·조정도 지원됐다.

신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위한 지원 외에도 채무상담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개공, 익산배산·혁신 에코리 2단지 공가세대 일반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및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리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20세대에 대해 다음달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받는다

이번 공급 세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2022~2024) 후 부작격 등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인 경우다. 기존 입주단지 특성상 인근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급가격이 큰 장점이다. 다만,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야 한다.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는 민영주택으로 101㎡ 2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은 2억9100만 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3백만 원 이상 납입한 자이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리 2단지 는 완주지역에 위치한 국민주택으로 50㎡(14세대)와 59㎡(4세대) 총 18세대를 공급하며 평균 공급가격이 각각 1억1208만 원, 1억2942만 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01만호 기자

## 전북 건단련, 김경안 새만금청장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간담회

###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적극 반영,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28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전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에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기업 참여도를 40%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최초 선정 시점과 입찰 시점을 고려한 새만금 SOCS사업의 적정공시비 반영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성화되

고 새만금 내 공공·민간 분야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더 확대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 공장 등 기업 제조 시설 등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증진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

만금의 성장기는 이제 시작 될 것이며, 11조 2천억원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역업체가 새만금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와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친(親)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는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상의, 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세 계산구조 실무교육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인 대표와 실무자가 함께 들으면 더욱 유용한 법인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세무그룹 에이블 안병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계산구조로 이해하는 법인세 △가치증급과 가수금 관리 △해외 지출의 회계처리 △결손금 소급공제 등 법인세 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흔히 법인세 실

무업무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명확히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내 기업의 회계 및 세무분야의 수요가 많아 교육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완주산단점, 완주경찰서장 감사장

### 완주산단지점 이은영 과장,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완주산단지점에 근무 중인 이은영 과장이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하며 완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22일 영암점을 방문한 고객이 초조한 모습으로 정기적금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해지사유를 묻자 대답이 없어 이은영 과장은 보이스포싱을 직



감하였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포싱 피해 유형을 언급하며 해당사항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현금 인출 시 고객에게 징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진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자급의 사용처를 자필기해 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포싱을 인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 및 안심거래 차단 서비스로 고객의 계좌를 보호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완주산단지점 전 직원이 합동작전을 펼쳐 2건 8백여만 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동접점을 활용해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FID(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보강 및 운영시간 확대하여 야간시간과 주말·공휴일까지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